

# 彗星歌 研究

李 妍 淑\*

## 目 次

I. 序 論	(1) 眞言法席密儀
II. 本 論	(2) 彌勒菩薩과 乾達婆信仰
1. 彗星出現의 意味	(3) 作者 融天師
2. 彗星歌의 雜密의 性格	(4) 構造와 性格
	III. 結 論

## I. 序 論

지금까지의 향가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불교적·주술적이라는 대립적 입장에서 논의되어져 왔다 이는 불교적 고찰의 경우 주로 顯敎의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던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라불교는 경전 연구를 위주로 한 顯敎와, 「三國遺事」 卷第二 文虎王 法敏條·卷第三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條·臺山五萬眞身條·卷第五 密本摧邪條·明朗神印條 등에서 볼 수 있듯이 現世求福을 위주로 한 呪의 신비적인 密敎의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향가 작품 중 불교사상에 바탕한 呪歌의 경우는 密敎, 그 중에서도 조직적으로 체계화되기 이전의 雜密의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향가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三國遺事」 撰者도 雜密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sup>1)</sup>를 보이고 있으며 「三國遺事」 편목에도 '神呪'가 들

\* 東義大學校 國語國文學科 敎授.

어 있으므로 「三國遺事」 所載의 일부 향가작품도 雜密의 측면에서 충분히 연구해 볼 수 있겠다.

## II. 本 論

그러면 「三國遺事」 卷第五 感通第七의 融天師彗星歌 眞平王代條에 들어 있는 <彗星歌>의 雜密의 性格을 논하기로 하되, 먼저 이 노래와 관련된 散文說話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第五 居烈郎, 第六 實處郎(혹 突處郎이라고도 쓴다.), 第七 寶同郎 등 화량의 무리 세 사람이 楓岳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彗星이 心大星을 범했다. 그래서 郎徒들은 이를 의아히 여겨 그 여행을 중지하려 했다. 그때에 融天師가 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불렀더니 별의 궤변은 즉시 없어지고 일본병이 제나라로 돌아감으로써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 임금은 기뻐하여 郎徒들을 보내어 금강산에서 놀게 했다. 그 노래는 이렇다.(後略)<sup>2)</sup>

위說話는, 彗星의 출현에서 국가의 위기가 예상되었는데, 融天師가 <彗

- 1) 卷第三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條의 散文 뒤의 撰者의 讚에 "...眞風을 두루 퍼지게 할 것이다."고 하여 眞風이 널리 유포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卷第四의 眞表傳簡條에서는 「占察經」에 譯者名과 그 날짜·장소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중국에서는 그것을 금지시켰다고 하는 「唐僧傳」의 내용을 비판하여, 「占察經」이 훌륭한 經典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 經이 占卜을 주 내용으로 하는 密敎系의 經임을 생각하면 撰者는 密敎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卷第四의 心地繼祖條에는 憲德大王의 아들 心地가 眞表의 簡子를 받은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 뒷부분에서 고려 예종 때의 簡子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음에서도 雜密에 대한 撰者의 긍정적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卷第五 惠通降龍條에서는 "숙명의 밝은 지혜로써 질을 세워 원망을 풀게 해주니 밀교의 교풍이 그제야 크게 떨쳐졌다."고 하였고, 역시 卷第五의 明朗 神印條에서는 "太祖(왕건)가 나라를 세울 때 또한 海賊이 와서 침범했으므로 이에 安惠·朗融의 후예인 廣學·大緣 두 대덕을 청해다 법을 만들어 왜적을 물리쳐 진압시켰는데 모두 명량의 계통이었다"고 하여 고려 건국에도 神印宗이 기여한 바 컸음을 말하고 있다.
- 2) 第五居烈郎 第六實處郎(一作突處郎) 第七寶同郎等三花之徒 浴遊楓岳 有彗星犯心大星 郎徒疑之 欲罷其行 時天師作歌歌之 星怪即滅 日本兵還國 反成福慶 大王歡喜 遺郎遊岳焉 歌曰(後略)

星歌>를 지어 불러 그 위기를 막았다고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日本兵의 來侵을 말하고 있음이 散文 속의 '일본 병이 제나라로 돌아감으로써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고 하였음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彗星歌>가 결과적으로 日本兵을 퇴치시킨 점에서 여러 學者들은 이 노래를 呪歌로 보았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金烈圭의 설을 들 수 있다. 그는 <彗星歌>를,

이들 三國史記의 記錄을 參考한다면 星怪의 祓禳이 곧 倭兵의 退治와 關聯될 수 있는 것이다. 이 祓禳과 退治를 可能케 한 것이 바로 이 彗星歌다. 이 노래는 于先 그 效用에 있어 무엇보다도 呪歌다.(중략) 彗星歌는 龜旨歌, 兜率歌를 이루었던 그 呪詞가 이른바 鄉歌十句形式에 便乘한 것이다. 便乘은 해도 呪詞 本來의 屬性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龜旨歌를 이른 呪詞의 隱喩原理과 連呼에 의한 喚起機能의 促進이라는 呪術原理를 따르는 反復法 등으로 말미암아 龜旨歌나 兜率歌에서 보았던 呪詞의 形式的 單純性이 變貌한 것이다. 그러나 그 變貌도 單純性的 重疊일 뿐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3)고 論하였다.

그러나 筆者는 <彗星歌>를 眞言의 性格을 지닌 雜密系의 노래로 보고자 하는데, 그에 대해 논증해 보고자 한다.

### 1. 彗星出現의 意味

세 화랑의 무리가 楓岳에 놀러 가려고 했을 때 나타난 彗星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彗星出現과 같은 국가위기의 징후로 보여지는 天文地理의 異變現象에 관한 기록이 「三國史記」·「三國遺事」에 많이 보이고 있다. 그것을 星宿의 異變에만 한정시켜 보면 「三國史記」에만도 137個所에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실 기록으로만 끝난 것을 제외하고, 국가적인 위기를 예시한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것만을 추출하여 신라시대를 중심으로 星宿의 異變이 무엇을 암시했던 것인가 그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3년(633) 가을 7월 土星이 달을 범했다. 54년 봄 정월에 왕이 세상을 떠남.4)(新羅本紀 第四 眞平王條)

3) 金烈圭, 鄉歌의 文學的 研究一斑, 鄉歌의 語文學的 研究(西江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72), pp.17-19.

#### 4 韓國文學論叢 第 15 輯

- 元年(647) 8월 혜성이 남쪽에서 나타났고, 또 못별이 북쪽으로 흘러갔다. 겨울 10월에 백제가 茂山·甘勿·桐岑의 세 성을 포위함.<sup>5)</sup>(新羅本紀 第五 眞德王條)
- 16년(676) 가을 7월에 혜성이 北河와 積水 사이에 나타났는데, 길이가 6, 7보 가량이나 되었다. 당나라 군사가 와서 道臨城을 쳐서 함락시킴.<sup>6)</sup>(新羅本紀 第七 文武王條)
- 10년(701) 봄 2월에 혜성이 달 쪽에 들어갔다. 11년 가을 7월에 왕이 세상을 떠남.<sup>7)</sup>(新羅本紀 第八 孝昭王條)
- 15년(716) 봄 정월에 유성이 달 쪽을 침범하니, 달이 빛이 없었다. 3월에 成貞왕후를 내쫓았다.<sup>8)</sup>(新羅本紀 第八 聖德王條)
- 34년(735) 봄 정월에 화성이 달의 분야를 침범했다. 2월에 副使 金榮이 당나라에서 죽음.<sup>9)</sup>(新羅本紀 第八 聖德王條)
- 6년(742) 여름 5월에 유성이 參大星의 분야를 침범했다. 왕이 세상을 떠남.<sup>10)</sup>(新羅本紀 第九 孝成王條)
- 24년(765) 6월에 유성이 心星의 분야를 침범했다. 이달에 왕이 세상을 떠남.<sup>11)</sup>(新羅本紀 第九 景德王條)
- 10년(809) 봄 정월에 달이 畢星의 분야를 침범했다. 왕이 세상을 떠남.<sup>12)</sup>(新羅本紀 第十 哀莊王條)
- 15년(823) 여름 4월 12일에 유성이 天市星의 분야에서 일어나 帝座星의 분야를 침범하고, 欽差星의 東北垣과 積星과 王良星을 지나 閣道星에 이르러 셋으로 나뉘어졌는데, 북을 치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면서 사라져 버렸다. 17년 봄 정월에 金憲昌의 아들 梵文이 高達山의 도둑 壽神 등 백여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킴.<sup>13)</sup>(新羅本紀 第十 憲德王條)
- 11년(836) 여름 6월에 살별이 동쪽에 나타났다. 가을 7월에 금성이 달의 분야를 침범하였다. 겨울 12월에 왕이 세상을 떠남.<sup>14)</sup>(新羅本紀 第十 興德王條)
- 17년(855) 겨울 12월에 토성이 달의 분야에 들어갔다. 가을 19년 9월에

4) 五十三年秋七月 土星犯月 五十四年春正月 王薨

5) 元年八月 彗星出於南方 又衆星北流 冬十月百濟兵圍茂山 甘勿 桐岑三城

6) 十六年秋七月 彗星出北河積水之間 長六七許步 唐兵來攻道臨城拔之

7) 十年春二月 彗星入月 十一年秋七月 王薨

8) 十五年春正月 流星犯月 月無光 三月…出成貞(一云嚴貞)王后

9) 三十四年春正月 彗惑犯月 二月副使金榮在唐身死

10) 六年夏五月 流星犯參大星 王薨

11) 二十四年夏六月 流星犯心 是月王薨

12) 十年春正月 月犯畢 秋七月…弑王

13) 十五年夏四月十二日 流星起天市 犯帝座過天市東北垣織女王良至閣道 分爲三聲 如擊鼓而滅 十七年春正月 憲昌子梵文與高達山賊壽神等百餘人 同謀叛

14) 十一年夏六月 星孛于東 秋七月 太白犯月 冬十二月 王薨

- 왕이 병환이 나 세상을 떠남.<sup>15)</sup>(新羅本紀 第十一 文聖王條)
- 7년(867) 겨울 12월에 客星이 금성의 분야를 침범했다. 8년 봄 정월에 이찬 金銳, 金鉉 등이 반역 모의함.<sup>16)</sup>(新羅本紀 第十一 景文王條)
  - 15년(875) 봄 2월에 살벌이 동쪽에 나타나서 20일만에 사라졌다. 가을 7월 8일에 왕이 세상을 떠남.<sup>17)</sup>(上同條)
  - 11년(885) 겨울 10월에 금성이 낮에 보였다. 12년 여름 6월에 왕이 병환이 나서 국내의 옥에 갇힌 죄수들을 놓아주고, 황룡사에서 百高座를 베풀었는데 가을 7월 5일에 왕이 세상을 떠났다.<sup>18)</sup>(新羅本紀 第十一 憲康王條)
  - 9년(905) 봄 2월에 별이 비처럼 떨어졌다. 8월에 궁예가 군사를 보내어서 쳤음.<sup>19)</sup>(新羅本紀 第十二 孝恭王條)
  - 6년(917) 봄 정월에 금성이 달의 분야를 침범하였다. 가을 7월에 왕이 세상을 떠남.<sup>20)</sup>(新羅本紀 第十二 神德王條)
  - 2년 정미(796)에는 또 天狗星이 東樓 남쪽에 떨어졌다. 머리는 항아리처럼 생겼고, 꼬리는 3척 가량이나 되었으며, 빛은 활활 타는 불과 같았으며 천지가 또한 진동했다. 7월에는 북궁 뜰안에 먼저 별 두개가 땅에 떨어지고 또 별 한개가 떨어지더니 별 세개가 모두 땅속으로 들어갔다. 이해 7월 3일에 각간 대공의 賊徒가 일어나고 서울과 五道 州郡의 도합 96명의 각간이 서로 싸워서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짐.<sup>21)</sup>(「三國遺事」 卷第二 惠恭王條)

星宿관계의 기록들을 분석하여 보면 星宿의 異變現象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은 왕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진평왕·효소왕·효성왕·경덕왕·애장왕·흥덕왕·문성왕·경문왕·헌강왕·신덕왕의 경우 星宿의 異變이 일어난 그 해이거나 아니면 그 이듬해에 왕은 병이 나거나 세상을 떠나고 있으므로 星宿의 異變이 왕의 병환·죽음을 예시한 것으로 볼

15) 十七年冬十二月 土星入月 十九年秋九月 王不豫(中略) 王薨

16) 七年十二月 客星犯大白 八年春正月 伊滄金銳金鉉等謀叛

17) 十五年春二月(中略) 星孛于東 二十日乃滅 秋七月八日 王薨

18) 十一年冬十月壬子 大白晝見 十二年夏六月 王不豫 赦國內獄囚 又於皇龍寺設百高座講經 秋七月五日 薨

19) 九年春二月 星隕如雨 八月 弓裔行兵侵奪我邊邑以至竹嶺東北

20) 六年春正月 太白犯月 秋七月 王薨

21) 至二年丁未 又天狗墜於東樓南 頭如瓮 尾三尺許 色如烈火 天地亦振 又是年(中略) 七月 北宮庭中 先有二星墜地 又一星墜 三星皆沒入地…七月三日 大恭角干賊起 王都及五道州郡并九十六角干相戰大亂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왕의 병환이나 죽음은 아니지만 역시 왕실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는 聖德王 15년 봄 정월에 유성이 달을 침범하고 난 뒤 3월에 成貞왕후가 쫓겨나고 있어 星宿의 異變은 왕후의 위기도 암시했다고 하겠다.

둘째로는 兵亂과 관련된 경우이다. 진덕왕·문무왕·문성왕·효공왕 때는 星宿의 異變이 있는 후 외적의 침공이 있었고, 헌덕왕·경문왕·혜공왕 때는 나라 안에서 모반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셋째는 관리들과 관련된 星宿의 異變現象이다. 星宿의 異變이 보인 뒤 얼마 안 있어 신라 성덕왕 때는 副使 金榮이 당나라에서 죽었다.

이와 같이 星宿의 異變은 왕실의 병·죽음 등 왕실의 위기, 외적의 침공·반역 등 兵亂관계, 주요 관직자의 죽음 등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혜성의 출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요약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내 용 출 처	왕 실 관 계		귀족관계	병 란 관 계	
	왕의 죽음, 병	왕후축출	죽 음	외적의 침입	모반사건
삼국사기	10	1	1	3	2
삼국유사					1

이와 같이 혜성이 국가적인 위기를 암시한 별이라는 것은 일본의 중 冊人 이 쓴 「入唐求法巡禮行記」 속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開成三年(838) 10월 22일 아침 일찍 彗星을 보다. 길이는 한 발(약 6척) 쯤인데 동남쪽에 있었다. 구름에 가리워 많이 보이지 않았다. 주지승인 舍微이 말하기를 “이 별은 劔光이다. 그저께, 어제, 오늘밤 3일밤에 나타났는데 오래지 않아 李相公에게 변이 있을 것이다. 매일 7인의 승려로 하여금 7일간 涅槃 般若를 讀誦하게 할 것이다. 다른 여러 절도 그렇게 해야 한다. 또 작년 3월에도 彗星이 나타났는데 극히 밝고 큰 것이었다.

天子가 驚怪하여 殿上에 있지를 못했다. 따로 卑座에 앉아서 마포를 입고 승려와 같은 식사를 하고 죄인을 방면했다. 생각컨대 올해도 그렇게 해야만 하지 않을까?” 이 말을 듣고 생각하니 本國(日本)에 있을 때 본 것이 주지의 말과 부합했다.

23일, (李相公의 隨軍) 沈弁이 와서 말하기를 “彗星이 나타났습니다. 곧 국가는 크게 쇠미하고 병난을 맞게 될 것입니다. 東海의 주인인 鯤·鯨

두 고기도 죽었습니다. 점괘를 보니 큰 패변이 있을 조짐입니다. 피가 흘러서 내를 이루니 兵亂이 일어나서 天下를 정복할 패입니다. (中略) 그 전 元和九年(814) 3월 23일 밤 혜성이 동방에 나타났는데 10월에 이르러 정월이 드러났습니다. 재상이 모반하여 王相公 이하 재상 및 大官 모두 20인을 죽이고 亂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만명 이상이 됩니다.” 고 하였다. 중들은 아직 확실한 일은 아니지만 다음을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였다. 밤부터 새벽까지 방에서 나와 이 彗星을 보았다. 동남쪽 구석에 있었는데 꼬리가 서쪽을 가리켰다. 빛이 극히 분명하고 멀리 바라보니 빛의 길이는 十丈 이상 되는 듯했다. 모두 말하기를 이것은 兵亂의 빛이다.”고 했다.<sup>22)</sup>

- 會昌元年(841) 11월 1일 冬至節. 혜성이 나타나서 며칠 후에는 점점 커졌다. 官家は 여러 절에 명하여서 經을 읽게 하였다. (中略) 8日 國忌 (敬宗의 崩御日, 826년)인데 이 절에서 官齋가 있었다. 城中의 여러 절은 목욕재계했다. 혜성은 드디어 나타나지 않았다.<sup>23)</sup>

비록 日本人 승려 卍인이 중국에 가서, 보고 듣고 한 기록이지만 여기에서 보면 開城 3년 10월 22일에 나타난 혜성을 보고 절의 주지인 舍微이 劍光이라 하며 李相公에게 변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23일에도 혜성이 나타나자 이것은 兵亂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 李相公의 隨軍 沈弁의 말을 보면 814년에도 3월에 혜성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7개월 뒤인 10월의 재상의 모반사건을 의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모두가 혜성의 빛을 ‘兵亂의 빛이다.’고 하였으므로 보아 兵亂과 관계된 별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신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혜성이 나타나고 난 직후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둔 뒤 국가적인 兵亂 등이 일어나고 있어 혜성은 국가적 위기를 암시하는 妖星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眞平王 때 나타난 혜성은 日本兵의 來侵을 암시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星宿의 異現象은 국가의 여러 위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그것을 퇴치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던 것인데 「三國史記」·「三國遺事」에서 자료를 적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7년(708) 여름 4월에 토성이 달쪽을 침범했다. 죄수들을 大赦했다.(新羅本紀 第八 聖德王條)

22) 入唐求法巡禮行記 1(平凡社, 1982), pp.63-64.

23) 入唐求法巡禮行記 2(平凡社, 1985), pp.181-182.

- 14년(715) 12월에 유성이 天倉星에서 太微星 분야에 들어갔으므로 죄인들을 용서하여 놓아 주었다.(上同條)
- 15년(779) 봄 3월에 금성이 달의 분야에 들어갔으므로 百座法會를 베풀었다.(新羅本紀 第九 惠恭王條)
- 6년(790) 여름 4월에 금성과 수성이 東井星의 분야에 모였다. 5월에 좁쌀을 내어서 漢山·熊川 2주의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했다.(新羅本紀 第十 元聖王條)
- 문무대왕 13년(673) 봄에 妖星이 나타났다. 왕이 관원에게 기도하여 재앙을 물리치게 하였다.(列傳 第三 金庾信條 下)
- 2년 정미(796)에는 또 天狗星이 東樓 남쪽에 떨어졌다. 머리는 항아리처럼 생겼고 꼬리는 3척 가량이나 되었으며 빛은 활활타는 불과 같았는데 천지가 또한 진동했다. 이에 왕은 죄수를 사면하고 몸을 닦고 반성했다.(『三國遺事』 卷第二 惠恭王條)
- 효소왕 2년 (693) 6월 12일에 혜성이 동방에 나타나고 17일에 또 서방에 나타나니 日官이 아뢰었다. “이것은 현금과 神笛에게 封爵하지 않은 표징입니다.” 이에 신적을 冊號하여 萬萬波波息笛이라 했더니 혜성이 그제야 사라졌다.(『三國遺事』 卷第三 塔象 第四 栢栗寺條)

위 기록들로 보아 星宿의 異現象을 퇴치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법으로 죄인을 大赦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百座法會를 열거나 祈禱를 행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신라를 중심한 동양문화권은 혜성을 凶星으로 사유하고 있었으므로 居烈郎, 實處郎, 寶同郎의 세 화랑의 무리가 楓岳에 유람하려고 했을 때 나타난 彗星은 큰 위기 의식으로 느껴졌고 따라서 놀러 가기를 중단했으나 融天師가 노래를 불러 일본병의 來侵을 암시하는 혜성의 출현이라는 괴변을 물리쳤던 것이다.

## 2. 彗星歌의 雜密的 性格

### (1) 眞言法席密儀

혜성을 비롯한 星宿의 異變은 고대인에게 국가적인 위기를 암시하는 凶星으로 사유되었음을 여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星宿의 怪異現象은 『三國史記』 卷第八 新羅本紀 第八 神文王 七年(687) 夏四月條에 大臣을 선조의 사당에 보내어 제사를 드리는 말에,

요즈음 道는 임금이 나라 다스림을 잃었고 義는 하늘의 鑑戒에 어긋나서 괴이가 별의 형상에 나타나 화성이 빛을 감추게 되니, 두렵고 조심스러움이 마치 깊은 못과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삼가 아무 벼슬에 있는 아무를 보내어 변변치 못한 제물을 받들어 베풀어서, 계시리라 생각되는 靈께 정성을 드립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이 작은 정성을 밝게 살피시고 조그마한 몸을 가련히 여기셔서 四時의 기후를 순조롭게 해주시고 五事의 징조가 어긋남이 없게 해주시며, 곡식은 풍족해지고 질병은 없어지고 의식은 넉넉해지며 예의는 갖추어져서, 안팎이 맑고 고요해지고 도적이 소멸되게 하시어 후손들에게 너그러운 도리를 보이시고 길이 많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sup>24)</sup>

라 하였음에서 볼 수 있듯이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道를 잃고 義가 天道에 어긋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彗星은 고대 中國人의 星宿觀에서 뿐만 아니라 불교경전에도 보이는데 雜部 密經에 특히 많이 보인다.

중국의 28宿나 서양의 7曜에 없던 두개의 惑성이 불교 점성술에 등장하여 九曜<sup>25)</sup>가 되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두개의 惑성은 바로 羅候星과 彗星(計都星)이다. 密教僧 不空三藏이 占星術書인 「宿曜經」을 번역한 것을 보면 彗星은 密教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密教經典인 「金光明最勝王經」 卷第六 四天王 護國品 第十二에도 혜성에 관한 기록이 보이고 있다.

四天王이 모두 합장하여 부처께 사뢰기를 세존이시여 만약 人王이 있어 그 나라에 비록 이 經은 있으나 아직 유포시키지 않고 捨離心을 내어 듣기를 즐겨 하지도 않고 또 공양 讚歎도 하지 않으며 四部衆의 經을 가지는 자를 보고도 또한 다시 존중하고 공양하지도 않아서 마침내 우리들과 나머지 眷屬인 無量諸天으로 하여금 이 깊고도 오묘한 法을 들을 수 없게 하여 甘露味를 등져 버리고 正法流를 잃어서 威光과 세력은 없고, 惡趣가 심해져서 人天이 損滅되어 生死苦海에 떨어져서 涅槃路에 등지게 되나이다. 세

24) 比者道喪君臨 義乖天鑒 怪成星象 火宿沈輝 戰戰慄慄 若墜瀆谷 謹遣使某官某奉陳不腆之物 以虔如在之靈 伏望炤察微誠 矜恤眇末 以順四時之候 無愆五事之徵 禾稼豐而 疫癘消衣食足而 禮義備表裏濟謐 盜賊消亡 垂裕後昆永膺多福 謹言

25) 고려시대에 九曜堂에서 비를 빈 기록이 보인다. 五月癸巳 醴九曜堂 禱雨[高麗史 卷第九 世家 文宗三十六年條(高麗史 上,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972), p.197]. 그 외에 睿宗 8年條에도 보인다.

존이시여 우리 四天王과 모든 권속 및 藥叉 등은 이와 같은 일을 본다면 그 국토를 버려 옹호하는 마음이 없어지나이다. 다만 우리만이 이 王을 버릴 뿐 아니라 국토를 수호하는 무량한 여러 大善神도 모두 버리고 떠날 것인데 이미 버리고 떠난다면 그 나라에는 마땅히 여러 災禍가 있고, 國威를 상실할 것이며, 모든 衆生은 모두 善心은 없고 다만 繫縛과 살해와 曠諍만이 있어 평소 서로 참소하고 모함하여 무고한 일을 일삼으며 疾疫이 유행하고 隄성이 자주 나타나며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고, 항상 일식·월식이 있고 흑백의 두 무지개가 상서롭지 못한 相을 나타내고 별이 흐르고 땅은 진동하며 우물 안에서 소리가 들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거센 바람이 부는 것이 時節에 관계없이 일어나므로, 항상 굶주리고 곡식은 자라지 않고 다른 곳의 怨賊들이 자주 나라를 침범하므로 백성들은 여러 고뇌를 받아 그 나라에는 즐거운 곳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四天王과 無量한 百千의 天神 및 국토를 지키는 옛 善神이 멀리 떠날 때에 이같은 수많은 재해와 나쁜 일이 생기게 됩니다.<sup>26)</sup>

나라 안에 「金光明經」이 있더라도 아직 유포시키지 않고 듣기도 즐기지 않고 공양 찬탄도 하지 않으면 四天王과 그 권속이 떠나므로 그 나라에는 질병이 유행하고 隄성이 자주 보이고 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서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彗星은 국가의 위기를 암시하는 凶星으로 사유되었는데 이 별이 密敎系 經典인 「金光明經」을 비롯한 여러 雜部 密經에도 보이므로 이 별이 나타났을 때 密儀가 행해졌으리라 추측할 수 있으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보이는 사료는 없다. 그러나 上代에 있어서의 雜 密儀에 관한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密儀에는 그 목적에 따라 息災法(扇底迦 Çāntika)·增益法(布瑟置迦 puṣṭika)·調伏法(阿毘遮嚕迦 Abhicaraka)·敬愛法(伐施迦囉擊 Vaçikaraṇa)

26) 爾時 四天王 俱共合掌白佛言 世尊 若有人王 於其國土 誰有此經 未常流布 心生捨離 不樂聽聞 亦不供養 尊重讚歎 見四部衆持經之人 亦復不能尊重供養 遂令我等及餘眷屬無量諸天 不得聞此甚深妙法 背甘露味 失正法流 無有威光及以勢力 增長惡趣 損滅人天 墮生死河 乖涅槃路 世尊 我等四王并諸眷屬及藥叉等 見如斯事 捨其國土 無擁護心 非但我等 捨棄是王 亦有無量守護國土諸大善神 悉皆捨去 既捨離已 其國當有種種災禍 喪失國位 一切人衆 皆無善心 惟有繫縛熬害曠諍牙 相讒詔 枉及無辜 疾疫流行 彗星數出 兩日並現 博蝕無恒 黑白二虹 表不祥相 星流地動 井內發聲 暴雨 惡風 不依時節 常遭饑饉 苗實不成 多有他方怨賊侵掠 國內人民受苦苦惱 土地無有可樂之處 世尊 我等四王及餘無量百千天神并護國土諸善神 遠離去時 生如是等無量百千 災怪惡事 [高麗大藏經 第九 (東國大學校出版部, 1959), p.1329].

·攝召法·延命法(若備多 Janita)의 다양한 수법이 있으나 新羅時代에는 의적을 물리치기 위한 調伏法이 주로 행해졌던 듯하다.

調伏法の 예로는 먼저 「三國遺事」 卷第二 文虎王 法敏條의 기록을 들 수 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당나라가 신라를 치려고 했을 때 明朗法師가 彩帛으로써 절을 입시로 짓고 풀으로써 五方의 神像을 만들고 瑜伽의 明僧 열 두 사람을 불러 文豆婁秘密法을 행하니 싸움을 하기도 전에 당나라 배가 침몰되었고, 그 후 절을 고쳐지어 이름을 四天王寺라 하였다고 되어 있다. 明朗이 神印宗의 開祖인 것을 생각하면 그가 文豆婁秘密法을 행하여 外兵을 물리친 일로써 密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정되고 체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로부터 新羅에서는 密僧에 의한 調伏法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일본의 문헌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平安(795-1192) 末期에 宇治大納言이었던 隆國(타카쿠니)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말해지는 「今昔物語集」(콘자쿠모노가타리슈우) 卷第十四 依調伏法驗利仁將軍死語 第四十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文德天皇(850-857在位) 때에 신라에 칙서를 내렸는데 신라가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았으므로 大臣과 公卿들이 의논하여 “신라는 日天天皇 때에 우리 나라에 복종하겠다고 했는데 이처럼 따르지 않으니 장래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군사를 내어 그 나라를 토벌해야만 할 것이다.”고 결정하였다. 당시 鎮守府 장군이었던 藤原利仁(후지와라 토시히토)라고 하는 사람을 신라에 파견하였다. 利仁은 용맹이 있고 兵法에 능했는데 이 명령을 받은 후 많은 용감한 장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배에 태우고 용맹스럽게 출발하였다. 이러한 동안 신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을 몰랐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잦은 괴변이 있으므로 점을 치니 異國의 군사가 쳐들어 온다고 하므로 국왕을 비롯하여 大臣公卿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異國으로부터 날랜 군사가 쳐들어 온다 하는데 맞서 싸울 방도가 없으니 다만 三寶의 영험에 의존할 뿐이다.”고 정하였다. 唐에는 法全阿闍梨라고 하는, 惠果和尚의 弟子로서 眞言의 密法을 전수받은 대단한 聖인이 있었는데, 곧 그 사람을 청해 調伏의 法을 행하게 하였다.

그 때 三井寺의 智證大師는 젊어서 당나라에 건너가 이 阿闍梨를 스승으로 모시고 眞言을 배웠는데, 그도 함께 신라에 건너가 있었지만 일본의 일로 인해서임을 어찌 알았겠는가. 그러는 동안 調伏法이 이미 七日이 찼을 때 壇上에 피가 가득 넘쳐 흘렀다. 阿闍梨는 “반드시 法의 영험이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結願한 뒤 唐에 돌아갔다.

그런데 利仁 장군이 출발하여 山崎에서 병이 나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 내달리며 허공을 향해 대검을 빼어들고 춤을 추며 몇 번 찌르는 바람에 넘어져 죽어 버렸다. 이렇게 되니 다른 사람을 또다시 보내는 일이 없이 끝나 버렸다.

그 후 智證大師가 唐으로부터 일본에 돌아가 신라에 건너갔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일본인은 ‘그러면 利仁 장군이 죽은 것은 그 調伏法の 영험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sup>27)</sup>(筆者譯)

일본이 내린 명령을 신라가 따르지 않으므로 일본은 利仁을 보내어 신라를 치려고 하였는데, 신라에서는 이 일로 잦은 괴변이 일어났으므로 짐을 치니 異國의 군사가 쳐들어 온다는 것이었다. 이에 法全阿闍梨를 불러 調伏法을 행하게 하니 調伏法이 7일이 잦을 때 壇上에는 피가 넘쳐 흐르고 그 영험으로 利仁은 일본을 떠나기도 전에 죽어 버렸는데, 이 일로 인해 일본에서는 다시 다른 사람을 보내는 일이 없이 끝나 버렸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이 역시 平安시대에 편찬된 실화집인 「打聞集」(우치키키슈우)의 十一 不空三藏驗事條에도 다음과 같이 보인다.

옛날 宇多天皇 때에 利仁 장군으로 하여금 신라를 치게 하였다. 많은 배에 날린 군사를 정비하였다. 이 일로 인해 신라에 이변이 생겼으므로 짐장에게 물으니 異國의 兵士가 쳐들어 온다는 것이었다. 이에 놀라 중국에 있는 不空阿闍梨를 청하여 調伏法을 행하였는데 三井寺의 智證大師도 동반하였다. 7일이 차자 壇上에 많은 피가 흘렀는데 “法の 정험이 있을 것이다.”고 하고 結願하고 중국에 돌아갔다. 그런데 利仁 장군은 출발하자 병이 나서 죽어 버렸다. 智證大師가 唐에서 돌아와서 말하는 것을 듣고 利仁 장군의 죽음은 阿闍梨의 기도의 효험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sup>28)</sup>

또 「古事談」(코지단)上 ‘圓珍의 調伏에 의해 利仁將軍 頓滅한 일(卷三의 十四)’에서는

宇多天皇 때에 利仁 장군을 신라에 보내어 치게 하였는데, 그 나라의 海上에서 滅해 버렸다. 云云. 이 일은 智證大師가 入唐하여 그 나라의 이야기로 調伏을 행한 때문인가.<sup>29)</sup>

27) 今昔物語集(岩波書店, 1965), pp.342-343.

28) 打聞集, 中島悅次(白帝社, 1961), p.81.

29) 古事談 上(現代思潮社, 1981), p.225.

라고 극히 간략히 서술하였다.

「今昔物語集」에서는 文德天皇 때의 일로 되어 있으나 「打聞集」·「古事談」에서는 宇多天皇 때의 일로 되어 있다. 또 調伏法을 행한 사람도 「今昔物語集」에서는 法全阿闍梨, 「打聞集」에서는 不空三藏, 「古事談」에서는 圓珍으로 되어 있어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라가 중국의 유명한 密僧을 청해 와서 調伏法으로 日本兵의 來侵을 방지했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 설화에 대해서 小學館本 日本古典文學全集의 「今昔物語集」校注者인 馬淵和夫는,

전혀 史實과 無關한 事件이지만 어쩌면 宇多天皇 때의 寬平 5·6년 新羅의 賊船이 肥前·對馬에 來襲하여 격퇴된 史實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 것인가.<sup>30)</sup>

라고 하였다.

그러나 本說話의 年代가 史實과는 꼭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시 신라에서는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明朗法師에 의한 文豆婁秘法과 같은 調伏法이 자주 행해지고 있었다는 事實을 말해주는 것<sup>31)</sup>이라고 생각된다. 「三國遺事」卷第二 文虎王 法敏條에 보이는 明朗法師에 의한 文豆婁秘法, 日本 설화에 보이는, 신라가 調伏法으로 日本兵을 퇴치시킨 기록들로 보아서도 신라 중기 이후에는 密儀가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調伏法이나 뒤의 兜率歌의 부분에서 논급할 散花供養密儀 외에는 韓國上代の 密儀에 관해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지만, 이미 앞의 '韓國 上代佛敎에 있어서의 雜密思想'에서 보았듯이 雜密思想이 일찍부터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文豆婁秘法 등과 같이 조직적이고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密儀도 행해졌으리라 사료된다. 그런데 그 密儀는 眞言法席密儀였지 않았나 생각된다.

30) 今昔物語集 一(小學館, 1985), p.610.

31) 高麗 文宗 때에도 이 文豆婁秘法을 四天王寺에서 행하여 蕃兵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다.

二十八年 秋七月庚子 設文豆婁道場於東京四天王寺 二十七日以禳蕃兵 [高麗史 卷第九 文宗條(高麗史 上,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972), p.186].

이 외에 睿宗 三年·四年條, 高宗 四年條에도 文豆婁秘法을 행한 기록이 보인다.

즉 「高麗史」 志 卷第七에

恭愍王 16년 6월 무신에 큰 뱀이 寢殿의 침상에 보였다. 丁巳에 궁안에 眞言法席을 배풀어서 물리쳤다.<sup>32)</sup>

라 한 기록이 보인다. 眞言法席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眞言을 念誦하는 것이 중심이 된 密儀였다고 생각된다. 이런 眞言法席이 신라 초기 밀교의 의식형태라고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明朗法師의 文豆婁秘法에 의한 唐兵調伏이나 法全 阿闍梨에 의한 日本兵調伏이 구체적 밀교의식을 행하고 있음에 비해 <彗星歌>의 경우는 그와 같은 구체적 의식에 대한 설명이 전혀 보이지 않으나, 眞言을 중심한 眞言法席密儀 형태였으리라 추정된다. 이런 차이는 앞의 두 調伏法이 다소 후대, 즉 密儀가 護國思想的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널리 확대 체계화된 단계의 것임에 비해 <彗星歌>는 新羅密敎 초기 단계의 雜密 사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金在庚의 논문 '新羅의 密敎 受容과 그 性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王室이나 王室을 중심으로 한 高位 眞骨社會로부터 密敎가 환영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 密敎 자체의 성격에서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三國時代 佛敎의 二大派가 戒律宗과 密敎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서 이 兩派의 성격은 대조적인 것으로 짐작된다. 즉 戒律宗이 戒律을 내세워 數的으로 肥大해져 가는 僧侶社會를 上代 王權 밑에 조직적으로 통솔하는 데 적합한 宗派였다고 한다면 밀교는 그가 가진 사면적 기능으로 除厄招福을 염원하는 庶民들에게 부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sup>33)</sup>

고 하여 초기 密敎가 高位 眞骨계층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것은 密敎가 사면적 기능과 상통하는 면이 있어 庶民에게 더 부합했던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이처럼 환영받지 못했던 密敎가 明朗의 文豆婁秘法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되어지는 이유를,

32) 恭愍王 十六年六月戊申 大蛇見于寢殿御床 丁巳設眞言法席于宮內以禳之 [高麗史 中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972), p.188].

33) 金在庚, 新羅의 密敎 受容과 그 性格, 大邱史學 14輯(1978. 6), p.12.

당시 新羅는 統一戰爭을 수행하는 중이라서 지친 民心을 統一戰爭의 승리에 대한 신념으로 규합시킬 필요성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民衆의 신념을 북돋우는 데는 이미 新羅社會에 土着화된 密敎의 기능을 이용할 필요가 생겼을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는 明朗이라는 高位身分을 통하여 庶民社會에 대대한 영향력을 가진 密敎를 護國攘兵的 形態로 채용하여 密敎의 여러가지 사면적 기능 중에서도 전쟁수행 과정에서 특히 절실한 天文·氣象의 部面을 강조함으로써 民衆의 士氣를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34)</sup>

고 하였다. 文明大도,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단합시키는 방편으로 唐軍과 싸움이 치열할 때마다 다 몇 차례에 걸쳐 密敎式大護國法會를 개최했고 그때마다 唐軍을 격퇴했는데 文武왕 16년인 676년에 드디어 唐軍을 완전히 몰아내자 그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四天王寺를 창건하기 시작하여 680년에 완성되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sup>35)</sup>

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新羅의 三國統一 과정에서 민심규합의 수단으로 서민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密敎를 국가가 호국적 수단으로 채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明朗은 純密敎를 연 善無畏三藏·金剛智三藏이 출생하기도 전에 入唐하고 있으므로 明朗에 의한 密敎는 純密 이전에 중국에 유포되어 있던 雜密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는 사실<sup>36)</sup>이라 하겠다.

같은 雜密이긴 하지만 明朗의 神印宗이 三國統一 과정에서 국가수호를 위한 수단으로 국가에 조직적으로 수용된 이래 구체적으로 壇을 베풀고 秘密한 儀式이 행해졌던 것이라 하겠다. 그 이전에는 洪潤植이,

‘金光明經’에 의한 四天王의 呪法이 이미 護國信仰으로 傳來되어 있었으나 그 秘法의 具體的 修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金光明經信仰은 단지 經典을 轉讀하고 四天王을 信仰하는 程度였으나 明朗이 그 修法을 唐나라에서 배워 傳한 것이다.<sup>37)</sup>

34) 金在庚, 위의 논문, p.16.

35) 文明大, 新羅神印宗의 研究, 叢檀學報 41號(1976. 4), p.192.

36) 朴泰華, 앞의 논문, p. 73.

37) 洪潤植, 三國遺事와 密敎, 三國遺事의 研究(中央出版社, 1982), p.297.

고 論한 것처럼 密敎經典을 轉讀하거나 密敎系 불보살들을 신앙하는 정도의 雜密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한다면 <彗星歌>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의 위기를 암시하는 凶星인 彗星의 出現이라는 天文의 異現象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체계화된 密敎儀式은 배풀어지지 않았지만 단순한 형태의 密儀였다고 생각되는 眞言法席에서 雜密的 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불리어진 眞言의 性格의 노래로 추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眞言은 梵語 曼荼羅(mantra)의 譯語로 眞實하여 허망됨이 없는 言詞를 의미하며, 呪·神呪·呪密·密言 등으로도 번역된다. 曼荼羅는 본질과 思惟를 드러내는 用具 즉 문자언어를 의미하며 특히 神鬼등에 대하여 發하는 신성한 語句를 칭하는 것이다. 긴 眞言을 陀羅尼, 몇 句로 이루어진 것을 일반적으로 眞言, 한두 字 정도의 짧은 것을 種子라고 한다. 그러나 서로 통용하여 한 字로 된 것도 眞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眞言의 相은 본래 畢竟寂滅相이라고는 하지만 衆生의 根欲에 따라 그것을 이롭게 하는 까닭에 世俗의 文字를 가지고도 표시한다. 世俗의 文字를 사용했다고는 해도 如來의 加持力에 의하여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다른 世俗의 종교에서의 呪詞와는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다.<sup>38)</sup> 眞言의 이러한 성격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彗星歌>도 신라시대의 世俗의 언어로 이루어진 眞言의 性格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다.

<彗星歌>는, 뒤에서 論할 <兜率歌>·<禱千手觀音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彌勒菩薩·千手觀音과 같은 구체적인 如來의 加持力을 歌詞 文면에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彗星歌>가 新羅密敎 初期 단계의 것이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附帶說話에 第五 居烈郎·第六 實處郎·第七 寶同郎의 三花郎이 보이며 노래의 第二句 '乾達婆矣遊烏隱城叱盼良望良古'에 乾達婆가 들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彗星歌>는 花郎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彌勒菩薩과 乾達婆神將을 배경으로 하여 그 加持力으로 彗星의 出現을 물리치려고 한 眞言의 性格의 노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38) 望月佛敎大辭典 3(世界聖典刊行協會, 1983), pp.2029-2030.

(2) 彌勒菩薩과 乾達婆信仰

이들 彌勒菩薩·乾達婆와 密敎와의 관계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彌勒信仰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彌勒菩薩은 梵語 梅呬麗耶(maitreya)의 譯語로 慈氏로도 번역되는데 일찌기 釋迦佛의 제자였으나 死後에 生天하여 現在 兜率天에 있으면서 그곳의 모든 天衆을 위하여 說法 敎化하고 있다가 미래에 閻浮提에 下生하여 釋尊에 이어 成佛하는 菩薩이다.

彌勒信仰에는 彌勒을 信仰하여 死後에 兜率天으로 올라가 彌勒菩薩의 說法을 듣고 敎化를 받고자 하는 彌勒上生信仰과 兜率天의 壽 四千萬를 지난 후에(즉 인간의 57억 6천만년 후) 當來世에 彌勒佛이 龍華樹 아래에서 成道하여 3회에 걸친 說法으로 모든 중생을 濟度하여 인간의 수명은 8만 4천세가 되고 국토는 淸淨豊樂하게 되는데 그때 그곳에서 함께 태어나기를 원하는 彌勒下生信仰이 있다. 한국 上代에는 彌勒下生信仰이 우세했던 것을 문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三國遺事」에 나타나는 彌勒信仰의 기록들을 중요한 것만 적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述宗公이 朔州都督使가 되어 임지로 갈 때 竹旨嶺에서 길을 닦고 있는 居士를 만났는데 부임한 지 한 달만에 公의 부부는 그 거사가 방안에 들어 오는 꿈을 꾸었다. 사람을 보내어 안부를 물으니 거사가 죽었다고 하므로 죽지령 북쪽 봉우리에 장사지내고 둘로 彌勒像 하나를 만들어 무덤 앞에 세웠다. 公의 아내는 꿈을 꾸 날로부터 태기가 있어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竹旨라 하였다.

(「三國遺事」, 卷第二 孝昭王代 竹旨郎條)

- 화랑 耆婆郎을 찬미하는 사뇌가를 지은 忠談師는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南山 三花嶺의 彌勒世尊에게 茶供養을 했다.

(「三國遺事」, 卷第二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

- 善德王 때 道中寺에 살고 있던 生義의 꿈에 한 중이 그를 데리고 남산에 올라가 풀을 묶어 표를 하게 하고는 편안히 묻어 달라고 했는데, 꿈을 깨어 표해 둔 곳을 찾아가서 파보니 둘 彌勒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三花嶺 위로 옮겼다.(中略) 충담사가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달여 공양한 이는 곧 이 부처님이다.

(「三國遺事」, 卷第三 生義寺 石彌勒條)

- 眞智王 때 興輪寺의 중 眞慈가 항상 堂主인 彌勒尊像의 앞에 가서 花郎

으로 화신하여 주기를 빌었는데 彌勒仙花 未尸郎을 만났다.

(「三國遺事」卷第三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

- 경덕왕 19년 庚子(760) 4월 2일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으므로 왕은 朝元殿에 壇을 만들고 인연 있는 중 月明師를 청하여 壇을 열고 기도문을 짓게 했는데, 月明이 자신은 國仙의 무리에 속해 있어 향가만 안다고 하였다. 향가도 좋다고 하여 짓게 했더니 괴변이 사라졌다. 왕이 品茶와 수정 염주 108개를 주었는데 동자가 받아서 나갔다. 나중에 보니 차와 염주는 남벽의 벽화 미륵상 앞에 있었다.

(「三國遺事」卷第五 月明師 兜率歌條)

위 기록들에서 보면 彌勒信仰은 竹旨郎·未尸郎의 경우와 같이 화랑의 출생과 관련되고 있거나 아니면 忠談師·月明師의 경우와 같이 화랑과 관계 있는 郎僧들이 彌勒佛을 신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三國遺事」속에서 彌勒信仰이 설명되어지는 경우 일반 서민과 관련된 예는 거의 보이지 않고 모두 화랑과 결부되어 있어 신라시대에 彌勒佛은 화랑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화랑이 국가수호의 임무를 지녔다는 점과, 화랑과 관계된 忠談師·月明師가 국가 위기시에 노래를 지어 異變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아울러 생각하면 彌勒菩薩은 鎮護國家的 성격이 강조되어 신라에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三國遺事」에 보이는 彌勒信仰에 관한 예들 중에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랑과 관계되어진 경우 이외의 것은 모두 밀교와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면 먼저 「三國遺事」卷第五 속의 密本摧邪條를 들 수 있다. 「藥師經」을 읽어 善德女王的 병을 고친 密僧 密本은, 丞相 金良圖가 어렸을 때 그의 병을 고쳐준 적이 있는데 良圖가 그 일로 인해 평생 불교를 깊이 신봉하고 興輪寺의 吳堂의 主佛인 彌勒尊像과 좌우의 菩薩 塑像을 만듦과 동시에 金色으로 堂의 벽화를 그리게 했다. 이것과 良圖의 병의 원인이었던 귀신의 무리가 密本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四方大力神을 두려워 했다는 사실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彌勒菩薩은 四方大力佛의 하나로서 밀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sup>39)</sup>고 추정되어

39) 三國遺事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條에서는 眞平王 九年(587)에 竹嶺의 동쪽 산에서 四方如來의 像이 새겨진 돌이 나타났고, 또 景德王이 栢栗寺에 행차하여

지는 것이다.

또 卷第四의 賢瑜伽海華嚴條에서는 瑜伽宗의 祖 大德大賢이 남산 茸長寺에 살고 있었는데 그 절에는 彌勒佛의 석조 丈六像이 있어 대현이 늘 불상을 돌아다녔더니 불상도 또한 대현을 따라 얼굴을 돌렸다<sup>40)</sup>는 기록이 보인다. 이 大賢은 경덕왕 12년(753) 여름에 가뭄이 심하자 「金光經」을 강하여 단비를 빌었던 승려이다. 이 사실과 密僧 明朗이 함께 文豆婁秘法을 행했던 승려 열두 사람은 瑜伽宗의 승려였다는 사실을 아울러 생각하면 大賢도 밀교와 관계 깊은 승려임을 알 수 있는데, 그가 미륵불을 숭앙하고 그 정성에 미륵불도 얼굴을 따라 돌렸다는 것은 미륵불이 밀교적 성격을 지님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또한 卷第四에 있는, 眞表에 관한 기록인 眞表傳簡條와 關東楓岳鉢淵藪石記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眞表는 法相宗의 開祖인데 法相宗이 인도에서는 瑜伽宗系라는 사실과 明朗法師가 瑜伽明僧 十二人和 文豆婁秘法을 행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眞表도 밀교와 무관하지 않은 승려였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설화를 보면 그가 궁극적으로 구한 것은 彌勒菩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가 靈山寺에서 수행하여 彌勒菩薩로부터 「占察經」 二卷과 簡子 189枚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彌勒菩薩이 신라시대에 雜密의 性格을 지녔음을 명확히 말해주는 것이라 보아진다. 이처럼 彌勒菩薩이 雜密信仰을 강하게 지니게 된 것은, 金承燦도 논급하고 있듯이 受容 초기부터 花郎徒와 결부되어 鎮護國家的 性格의 佛菩薩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라<sup>41)</sup> 생각된다.

다음은 乾達婆에 관해서이다.

中村元の 「佛敎語大辭典」을 보면, 乾達婆를,

---

산밑에 이르렀을 때 땅속에서 염불을 외는 소리가 들려 땅을 파게 하니 사면에 四方佛이 새겨진 큰 돌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四方佛이 무엇인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李箕永은 新羅後期の 四方佛을 釋迦·彌陀·彌勒·藥師라 한 뒤, 7세기 전반에는 이같은 구성이 나와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 [象徴的 表現을 통해서 본 7-8世紀 新羅 및 日本의 佛國土思想, 韓日古代文化交渉史研究(乙酉文化社, 1974), pp.138-139]. 그러나 꼭 이같은 구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찍부터 四方佛에 彌勒菩薩은 들어 있었다고 사료된다.

40) 瑜伽祖大德大賢 住南山茸長寺 寺有慈氏 石丈六 賢常旋繞 像亦隨賢轉面

41) 金承燦, 鄉歌의 佛敎的 考察, 人文論叢 第23輯(부산대학교, 1983. 6), p.31.

gandharva의 音寫. 건달바는 인도 신화상의 妖精의 이름. 天界에 살며, 신들의 음료인 소마酒를 수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불교에 수용되어서 天龍八部衆의 하나가 되었다. 緊那羅와 함께 帝釋天을 모시면서 음악을 연주한다.<sup>42)</sup>

고 되어 있다. 雜密系の 佛菩薩의 대부분이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乾達婆가 원래는 인도 신화상의 신이었는데 불교에 수용되었다는 것에서 乾達婆도 雜密系에 속하는 神將임을 알 수 있다. 「密教大辭典」에서도 乾達婆를,

八部中の 하나. 健達婆·乾達婆·彦達婆·乾沓和 등으로 쓰며 香神·尋香·行樂神 등으로 번역한다. 인도의 신화에서 건달바는 蘇摩(雨)를 관리하는 자, 혹은 最妙樂인 蘇摩를 사용하는 良醫로 혹은 태양의 말(馬)이 통과하는 도로를 호위하는 자이다. 불교에서는 帝釋天을 모시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신으로 향을 찾아 먹는다고 한다. (中略) 胎藏現圖曼荼羅 外院 西邊 및 北邊에 위치하는 樂天을 건달바라고 하고 혹은 西邊의 歌天도 건달바라 하기도 한다.<sup>43)</sup>

고 하였다.

龍樹가 지었고 後秦龜茲國의 三藏鳩摩羅什이 번역한 「大智度論」 釋天主品 第二十七에는 四天王에 관한 설명이 보이는데 그 四天王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四天王은 동방에 있는 것은 提多羅吒라 이름하며(秦言으로 治國이다.) 乾達婆라 毗舍闍를 거느리고, 남방의 것은 毘流離라 이름하는데(秦言으로 增長이다.) 拘槃荼 및 薛荔多를 거느리고, 서방의 것은 毘流波叉라 하는데(秦言으로 雜語이다.) 여러 龍王과 富多那를 거느리고, 북방의 것은 鞞沙門인데(秦言으로 多聞이다.) 夜叉 및 羅刹을 거느리고 있다.<sup>44)</sup>

42) 中村元, 佛敎語大辭典(東京書籍株式會社, 1983), p.325.

43) 密敎辭典編纂會, 密敎大辭典(法藏館, 1984), p.480.

44) 四天王王者 東方名提多羅吒(秦言治國) 主乾闥婆及毘舍闍 南方名毘流離(秦言增長) 主拘槃荼及薛荔多 西方名毘流波叉(秦言雜語) 主諸龍王及富多那 北方名鞞沙門(秦言多聞) 主夜叉及羅刹(高麗大藏經 第十四, p. 1038)

佛說長阿含經 卷第十二 大會經 第十五에도 '復有東方提頭賴吒天王 領乾沓想神 有大威德 有九十一子 盡字因陀羅 皆有大神力 南方毘樓勒天王 領諸龍王 有大威德 有九十一子 亦字因陀羅 有大神力 西方毘樓博叉天王 領諸鳩摩茶鬼 有

여기에서 보면 건달바는 四天王 중 東方을 수호하는 神인 提多羅吒에 속해 있는 神將으로 나타난다.

또 「大方等大集經」 卷第五十二에는 四天王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보이는데 그 중 大集經月藏分 第十二 提頭賴吒天王護持品第十一에는,

이때 또 百億提頭賴吒天王이 있어 (中略) 합장하여 예를 베풀고 婆伽婆 大德에게 말했다. “(中略) 우리들은 거기에서 성심으로 가호하고 길렀으며 마음이 혼탁하지 아니하게 하고 모든 산란한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열반 문으로 들게 하였으며 언제나 우리들은 일체의 고약한 중생들을 차단하고 일체의 말다툼·역병·기근·장마·추위·더위·고통 등과 같은 모든 유쾌하지 못한 일들을 범주게 하였습시다.” (中略) 부처께서 樂勝 提頭賴吒天王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妙大夫야. 이 四天下의 땅 중에서 東方 四分을 내가 마땅히 가호해야 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고 하면 이 땅은 여러 부처님이 나신 곳이다. 따라서 너는 최상으로 가호하여야 하느니라. 과거의 여러 부처님들이 너의 가호와 양육을 받았듯이, 미래의 부처님 또한 이와 같으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 乾達婆 무리와 모든 夜叉 등 일체의 권속이 모두 다 마땅히 지극한 정성으로 가호하여 양육해야 하느니라.”<sup>45)</sup>

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乾達婆·乾達婆大力軍將兄弟三人, 乾達婆兄弟十一人, 乾達婆三十三人 등 乾達婆 무리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이들 기록으로 보아 乾達婆는 護世 四天王 중 東方을 수호하는 提多羅吒天王(提頭賴吒라고도 하는데 持國天王이다)에 속하고 있는 神將임을 확인할 수 있다.

明朗의 文豆婁秘法 후에 세워진 절이 四天王寺인 것과, 祈雨·治病·國家 泰安 등의 현세이익을 구하는 雜密에 있어 특히 四天王信仰이 중요시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乾達婆는 밀교와 관련된 불보살인 것이 다시 확인

大威德 有九十一子 亦字因陀羅 有大神力 北方天王名毘沙門 領諸悅叉鬼 有大威德 有九十一子 亦字因陀羅 有大神力 此四天王護持世者 有大威德 身放光明 來詣迦維林中(高麗大藏經 第十七, p.924)라 하여 같은 내용이 보인다.

- 45) 爾時復有百億提頭賴吒天王(中略) 合掌敬禮作如是言 大德婆伽婆(中略)我等於彼勤加護持攝受養育 令心不濁離諸散亂涅槃門 隨幾時中 我等常當遮障一切惡心衆生 令善法朋久住增長 一切開諍疫病飢饉 非時風雨冰寒毒熱苦辛(中略) 衆惡不可樂事悉令休息(中略)爾時 佛告樂勝提頭賴吒天王言 妙大夫此四天下閻浮提中東方第四分 汝應護持 何以故 此閻浮提諸佛興處 是故汝應奉上護持過去諸佛已曾教汝護持養育 未來諸佛亦復如是 并及汝子乾闥婆衆諸夜叉等一切眷屬 應令敬信護持養育(高麗大藏經 第七, pp.493-494)

되는 것이다. 乾達婆는 그 수가 무척 많고 星座를 바르게 하기도 하는 神<sup>46)</sup>이기도 한데 이 사실을 아울러 생각하면 彗星의 출현이라는 星宿의 이변을 물리치고 星座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乾達婆가 적절한 加持力을 지닌 불보살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또 四方을 수호하는 方位神 중에서도 동방의 提多羅吒天王에 속하고 있으므로, 화랑과의 관계 속에 鎮護國家的 性格을 지닌 彌勒佛과 함께 혜성의 출현이 암시하는 동쪽으로부터의 일본병의 來侵을 막기 위해 가장 적절한 힘을 지닌 神將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라 본다.

### (3) 作者 融天師

다음은 작자 融天師에 대해서이다. 이 용천사가 어떤 인물이며 어디에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자료는 없다. <彗星歌>의 부대설화로 그의 사상, 성격에 대해 추론할 수 있을 뿐인데 尹榮玉은,

“天師”란 天上과 地上을 往來할 수 있어, 神의 뜻을 인간에게, 그리고 人間의 所望을 天上神에게 傳達할 수 있는 巫의 存在의 人間을 가리킴이다.<sup>47)</sup>

라 하여 巫的인 存在로 파악하였다. 김승찬은 또,

融天師는 그 이름이 뜻하듯(本名은 아닌 듯?) 天氣나 운행을 조절하고 융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郎僧임을 알 수 있다.<sup>48)</sup>

고 하여 郎僧으로 보았다.

산문 기록 중의 三花之徒로 보아 楓岳에 놀러가는 것은 집단적인, 어느 정도의 규모를 지닌 공식적 행사였다고 보아진다. 또 ‘有彗星犯心大星 郎徒疑之’로 보아 花郎이 國家守護의 主役을 담당하고 있었던 만큼 花郎들도 星宿에 관한 일반적 지식은 있었던 듯하다. 그리고 이 花郎團에는 星宿關係를 맡은 雜密師도 소속되어 있었으리라 보아지는데 融天師는 그와 같은 雜密系의 郎僧이었지 않았을까 싶다.

46) 大村西崖, 密教發達志 卷二(佛書刊行會, 1918), p.243.

47)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螢雪出版社, 1980), p. 29.

48) 金承瓏, 「三國遺事」所載 鄉歌의 呪術의 特質, 三國遺事와 문예적 가치 해명(새문사, 1982), p.11-68.

「三國史記」雜誌第八의 職位와 官等에 관한 부분에는 司天博士가 보이며 列傳第三 金庚信條에는

윤중의 서손 巖은 총명하고 민첩하여 方士의 술법을 익히기 좋아했다. 젊었을 때 이찬이 되어 당나라에 들어가서 宿衛했는데, 틈틈이 스승에게 나아가서 음양가의 술법을 배웠다. 네모진 것의 한 방면의 이치를 들으면 세 방면의 이치를 증거했다. 스스로 遁甲立成法을 저술하여 그 스승에게 올리니 스승은 놀라면서 말했다. “그대의 총명 통달함이 이와 같은 줄은 미처 몰랐구나.” 이로부터 그 후에는 감히 제자로서 그를 대우하지 못했다. 대력 연간에 본국에 돌아와서 司天博士가 되었다.<sup>49)</sup>

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와 같은 司天職이, 彌勒信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花團圓에는 雜密의 性格을 지니고 존재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融天師는 그러한 司天關係를 담당한 雜密系의 郎僧이었으리라 생각된다.

金東旭도 融天師가 아무렇게나 노래 부른 것은 아닐 것이며, ‘營壇作梵’하여 祈禳하여 부른 노래가 아닐까 한다<sup>50)</sup>고 하였다.

실화 문맥에 ‘營壇’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실제 壇을 만들고 노래를 불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壇이 密敎와 관계된 것임을 생각하면 김동욱도 融天師를 雜密系 승려로 본 듯하다.

#### (4) 構造와 性格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의 어석과 구조 그리고 성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작품 원문을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舊理東戶汀叱  
 乾達婆矣遊烏隱城叱盼良望良古  
 倭理叱軍置來叱多  
 烽燒邪隱邊也藪耶  
 三花矣岳番見賜烏戶聞古

49) 允中庶孫巖 性聰敏 好習方術 少壯爲伊濱 入唐宿衛 間就師學陰陽家法 聞一隅則反之以三隅 自述遁甲立成之法 呈於其師 師憮然曰 不圖吾子之明達至於此也 從是而後 不敢以弟子待之 大曆中 遷國爲司天大博士 文明大는 김암도 역시 그의 할아버지인 김유신의 밀교적 성격을 다분히 전해 받았을 것으로 보았다.(앞의 논문, p.200).

50)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乙酉文化社, 1976), p.30.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  
 道尸掃尸星利望良古  
 彗星也白反也人是有叱多  
 後句 達阿羅浮去伊叱等邪  
 此也友物比所音叱彗叱只有叱故

너리 실 뭉고  
 乾達婆이 노른 자슬랑 브라고,  
 여릿 軍도 옛다  
 왜 툇얏 어여 수프리아.  
 三花이 오름 보시울 듣고  
 드라라도 그르그시 자자렐 바에,  
 길 쓸 버리 브라고  
 彗星이여 슬바너 사르미 있다.  
 아야 드라라 베킷드야  
 이에 버물 브스스 彗사 다브넛고.<sup>51)</sup>

옛날 東쪽 물가  
 乾達婆의 논 城을랑 바라고,  
 倭軍도 왔다  
 햇불 올린 어여 수풀이여.  
 세 花郎의 山 보신다는 말씀 듣고,  
 달도 갈라 그어 찾아들러 하는데,  
 길 쓸 벌 바라고,  
 彗星이여 하고 사된 사람이 있다.  
 아아, 달은 떠가 버렸더라.  
 이에 어울릴 무슨 彗星을 함께 하였  
 습니까.

먼저 語釋 문제이다. <彗星歌>의 경우 音讀에 있어서는 학자간에 다소의 차이는 보이거나 의미상의 해석에 있어서는 대체로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第9句 ‘達阿羅浮去伊叱等邪’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이 견해의 차이가 있다.

梁 柱 東 : 아으 돌아래 베킷드라(달이 아래에 떠갔더라)<sup>52)</sup>  
 小倉進平 : 돌(이) 베킷드라(달은 떠 갔다)<sup>53)</sup>  
 池 憲 英 : 드르르 베킷드라(衆生敵軍들은 지금 떠나가고 있다)<sup>54)</sup>  
 李 鐸 : 돌아(라) 불아잇스드라(밝은 달이, 길 쓸 바가 있는 것이다)<sup>55)</sup>  
 洪 起 文 : 드르르 베킷 잇다라(드르르 베킷드라)<sup>56)</sup>  
 金 善 祺 : 팔아(라) 브깁따라(달 아래 뜨겠다고)<sup>57)</sup>  
 徐 在 克 : 돌아라 베킷 잇드라(길잡이하러 떠 갔더라)<sup>58)</sup>

51) 金完鎮, 鄉歌解讀法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 1980), p.128.

52) 梁柱東, 古歌研究(一潮閣, 1974), p.596.

53) 小倉進平, 鄉歌及び吏讀の研究(近澤商店印刷所, 1929), p.220.

54) 池憲英, 鄉歌麗謠新釋(正音社, 1947), p.10.

55) 李鐸, 國語學論攷(正音社, 1958), p.231.

56) 洪起文, 향가해석, p.268.

57) 金善祺, 길쌈노래, 現代文學 145號(1967. 1), p.299.

金完鑣: 달아라 버가 이스등야(달은 떠가 버렸더라)<sup>59)</sup>  
 金俊榮: 달이라 버갓드라(引導하러 떠 가더라)<sup>60)</sup>

‘浮去伊叱等邪’의 해석은 다 ‘떠나가다’로 풀이하고 있어 별 차이는 없으나 ‘達阿羅’에 대해서는 ‘① 달(月) ② 敵軍 ③ 드르르(의태어) ④ 引導하러’로 해석하여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④의 경우는 주체가 달이 될 것이므로 결국 ①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 하겠다. 그런데 ‘達’을 과연 ‘月’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향가 작품 중에서 ‘月’이 사용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彗星歌)  
 두라라도 그르그시 자자럴 바애(달도 갈라 그어 잣아들려 하는데)
- 月下伊底亦(願往生歌)  
 두라리 엇데역(달이 어찌서)
- 月羅理影支古理因淵之叱(怨歌)  
 두라리 그르메 누린 못곳(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가)
- 露曉邪隱月羅理(讚耆婆郎歌)  
 이슬 불잔 두라리(이슬 밝힌 달이)
- 東京明期月良(處容歌)  
 東京불기 두라라(東京 밝은 달에)

그리고 위의 用例 외에 卷第五 永才遇賊條에 들어 있는 <遇賊歌>의 第2句 ‘日遠鳥逸口口過出知遺’ 중의 欠字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은 ‘盡良, 川理, 西山, 如支’ 등으로 보충하고 있으나 金完鑣은 ‘月矣’가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論外로 하더라도 향가 작품에 쓰여진 용례의 ‘月’은 모두 한자 자체가 지닌 고유한 뜻의 ‘달’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달’의 의미에 ‘月’ 이외의 한자가 쓰여진 예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논하고 있는, <彗星歌>의 第5句에도 ‘月’이 그 고유한 의미의 ‘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아 기록자가 같은 작품 속에서 구태여 ‘達’字를 가지고 ‘月’의 의미를 표기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第9句에 대한 학자들의 어석 중에는, 혜성의 떠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 ‘드르르’로 본 洪起文의

58) 徐在克, 新羅鄉歌의 語彙研究(啓明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75), p.41.  
 59) 金完鑣, 앞의 책, p.128.  
 60) 金俊榮, 鄉歌文學(蜃雪出版社, 1979), p.159.

해석이 ‘月’의 의미로 해석한 것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실려 있는 「三國遺事」의 撰者가 경상도 출신이라는 점과 第10句에서 무슨 해기가 있을 것인가고 역설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彗星이 ‘다아라(달아나) 떠 갔다’로 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해성이 이 노래를 듣고 빨리 달아나 물러감으로 하여, 星座의 질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작자의 彗星 退治에의 願望을 더 강조할 수 있고 또한 眞言의 效果도 커질 수 있었으리라 보아진다.

다음은 이 작품의 구조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 작품은 前8句 後2句의 총 10句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내용상으로 보면 모두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第1句에서 第4句까지이다. 여기에서는 과거의 일이 노래되고 있다.

이 중 第3句는 「三國史記」新羅本紀 第一 祇摩尼師今 十一年條의,

여름 4월에 大風이 동쪽에서 불어 나무를 꺾고 기와를 날렸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쳤다. 성 사람들이 말을 퍼뜨리기를 왜병이 크게 쳐들어 온다고 하고는 다투어서 산골짜기로 숨어들었다. 왕이 이찬 翌宗들에게 명하여 달래어 그만 두게 하였다.<sup>61)</sup>

라 한 기록을 연상시킨다. 동해변에 접해 있어 倭兵의 잦은 침입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外敵의 침략을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던 당시 신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조그마한 天文·氣象의 변화도 日本兵의 來侵을 암시하는 것으로 오인되어졌을 것이다. <彗星歌>에서는 옛날에 동해 물가에서 건달바가 놀고 있는 성을 바라보고는 일본병이 쳐들어 온 것으로 잘못 알고 봉화를 올렸다는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외적 침입의 경험으로 건달바의 놀던 곳을 보고도 일본병이 쳐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두려워했지만 그것은 전연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내용 이면에는 건달바는 방위 수호신으로 그 신이 놀고 있다는 것은 나라가 태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병의 침입이란 당치도 않은 말이란 것을 강조하고

61) 夏四月 大風東來 折木飛瓦 至夕而止 都人訛言 倭兵大來 爭遁山谷 王命伊滄翌宗等諭止之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第2句 ‘乾達婆의 놀던 城’은 「三國史記」新羅本紀 第三 實聖尼師今 十二年條에 다음 기록과 비슷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을 8월에 구름이 狼山에 일어났는데 그것을 바라보니 누각 같았다. 향기가 매우 강하였는데 오래도록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이는 필시 신선의 靈이 내려와 노는 것일 것이니 이곳은 웅당 복있는 땅이라 하였다. 이후로 사람들이 나무를 베는 것을 금하였다.<sup>62)</sup>  
 둘째 단락은 第4句에서 第8句까지이다.

여기에서는 현재의 일을 말하고 있다. 첫째 단락에서 나라를 지켜주는 방위 神將이 나라의 태평한 때에 노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倭兵이 침입해 온다고 잘못 생각한 것처럼, 달도 화랑들이 楓岳에 유람가는 것을 돕기 위해 길을 밝히고 있는데, 길쓸별을 바라보고는 사람들이 凶星인 혜성으로 오인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作者는 혜성이 나타난 사실을 부인하고 길쓸별을 혜성이라고 했다고 뒤집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은 혜성의 出現을 물리치려는 願望을 역설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단락은 第9·10句이다. 여기에서는 혜성도 달이나 떠가 버렸는데 혜기가 있기는 어디에 있는가고 의문법으로 혜성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金重河는 <彗星歌>가 혜성의 출현이라는 현재의 徵候에 대처함에 있어 아직 오지 않은 未來의 사실까지 포함시켜 呪歌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산문기록과 <彗星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의문을 插入한다면 彗星歌와 散文記錄 사이에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의 可能性을 推定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現存하는 三國遺事의 散文記錄에는 隱喻의인 것과 事實의인 것이 重複된 곳이 없다는 점에서, 두 개의 각각 다른 記錄이 類似한 目的 때문에 糞合되었으리라는 可能性이다. 同一 人物 融天師의 神異한 能力을 誇示한 두 사실이 오랜 시일을 두고 전해지는 동안 하나의 사실로 축약되고만 셈이다. 이것은 同時에 두개의 鄉歌의 結合을 必然的으로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現存의 彗星歌와 같은 모습의 作品으로 記錄되게 한 것이리라는 推定이다. 그러면 前四句가 兜率歌와 같은 獨立된 作品이고 後六句 또한

62) 秋八月 雲起狼山 望之如樓閣 香氣都然 久而不歇 王謂是必仙靈降遊 應是福地 從此後 禁人斬伐樹木

獨立성이 있는 作品이 된다. (中略)

둘째, 既存鄉歌의 前四句가 지닌 呪意를 合理化시키기 위하여 後代에 “日本兵還國”을 散文記錄에 挿入했으리라는 推定도 가능하다. 이것은 彗星歌의 構造로 보았을 때 前四句(第1,2,3,4句)와 後四句(第5,6,7,8句)와의 關係가 主從으로 놓여 있음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sup>63)</sup>

여기서 ‘日本兵還國’은 後代인이 散文 기록시에 삽입했을 것이라는 추정 은 설득력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前4句의 呪意를 合理化시키기 위하여 삽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散文 기록에서 해성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일본병의 來侵을 암시하는 것임을 파악하고 노래를 지었다는 내용이 생략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前4句도 독립적인 하나의 향가가 아니고 第5句에서 第8句까지의 본래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옛날의 예를 들었다고 소박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彗星歌>는 이와같이 新羅時代에 雜密的 信仰과 밀착되어 수용된 彌勒信仰과 乾達婆神將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彗星(日本兵)을 퇴치했다고 하는 結果로부터 眞言的 性格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다. 비록 彌勒菩薩·乾達婆에 직접 請願한 것은 아니지만, 眞言이 神鬼등에 대해 發해지는 神聖한 語句이며 眞言의 相은 비록 畢竟寂滅相이라고 해도 衆生의 根欲에 따라 그것을 이롭게 하는 까닭에 世俗의 文字를 가지고 표시하는 것임을 생각하면 <彗星歌>는 新羅語로 지어져, 日本兵의 來侵을 암시한 彗星을 퇴치하기 위해 彌勒菩薩과 乾達婆의 加持力을 배경으로 하여 불리어진 眞言的 性格의 노래라 보아진다.

### III. 結 論

이상에서 살펴 본 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3) 金重河, ‘鄉歌의 一考察’, 國語國文學 13·14輯(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7), pp.110-111.

첫째, 혜성 출현의 의미인데, 「三國史記」·「三國遺事」에 나타난 星宿관계의 기록들을 분석하여 보면 星宿의 異變이 왕의 죽음, 외적의 침공과 국내에서의 모반사건, 그리고 주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彗星歌>의 경우는 그 중에서 왜적의 침입을 암시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라 하겠다.

둘째, 혜성은 중국의 28宿나 서양의 7曜에는 없었던 것이 불교 점성술에 등장하여 공포의 대상이 된 凶星인데, 密敎僧 不空三藏이 占星術書인 「宿曜經」을 번역한 것을 보면 密敎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흉성을 퇴치하기 위해 明朗法師의 문두루 비법에 의한 唐兵調伏法이나 法全 阿闍梨에 의한 日本兵調伏法과 같은 雜密儀가 배풀어 졌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밀교가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용되기 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보아진다.

셋째, 신라초기 불교에도, 비록 체계화된 密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金光明經」과 같은 密部 經典이 전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兜率歌>도 잡밀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眞言의 性格의 노래라 할 수 있다 하겠는데 <彗星歌>는 彌勒菩薩과 乾達婆의 加持力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넷째, 「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미륵신앙 관계의 설화를 보면 거의 모두 화랑과 관련된 것이거나 아니면 밀교와 관련되어 있어 신라시대의 미륵신앙이 국가수호단체인 화랑과 결부되어 鎮護國家的 性格을 지닌 불보살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혜성의 출현을 발견한 三花郎과 관련지어 보면 이 노래는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 노래 속에 乾達婆가 나오는데 이 신은 원래 인도신화 상의 神이 불교에 수용되면서 天龍八部衆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 星座를 바르게 하는 신이라는 점, 또 불교에 수용되어서 四天王 중에서도 東方을 수호하는 提多羅吒 밑에 소속하게 된 神將이라는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彗星이 나타난 星座를 바르게 하고 동쪽으로부터의 일본병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乾達婆의 加持力이 적절했다고 보아진다. 이로 보면 <彗星歌>는 鎮護國家的 性格의 彌勒菩薩과 護世四天王 가운데 東方을 守護하는 持國天王 아래에 있는 乾達婆 神將을 바탕으로 그에 의해 혜성을 퇴치한 雜密的 性格의 노래라고 볼 수 있겠다.

다섯째, 星宿·日月 등의 天文 현상으로 국가의 대소 吉凶事를 파악했던 上代에 있어서 국가수호단체인 花郎團에는 天文 관계를 담당한 雜密師도 소속되어 있었으리라 보아지는데 融天師는 그와 같은 雜密系의 郎僧이었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이 노래의 第9句 ‘達阿羅浮去伊叱等邪’의 해석에 있어서 「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향가 작품 중 ‘달’의 의미엔 ‘達’이 쓰인 예는 없으며 모두 ‘月’字가 사용된 점에서, 또 撰者가 경상도 출생인 점을 감안하여 ‘다아라(달아나) 떠갔더라’로 풀이함이 옳다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혜성이 이 노래를 듣고 빨리 달아나 물러가서 星座의 질서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작자의 願望을 더 강조할 수 있고 眞言的 효과도 커질 수 있었으리라 보아진다. 이 노래의 구조를 보면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第1句에서 第4句까지의 첫째 단락에서는 乾達婆가 놀던 성을 바라 보고 왜적이 침입한 것 이라고 놀란 적이 있다는 과거의 일을 예로 들고 있다. 第5句에서 第8句까지의 둘째 단락에서는 3화랑이 놀러 가는 길을 비추어 주려고 달도 밝게 떠 있는데 길썰별을 보고 혜성이라 놀라는 사람이 있다고 현재의 일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第9·10句의 셋째 단락에서는 혜성이 떠가고 없다. 무슨 혜기가 있을 까고 말하였는데 여기서는 혜성이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願望이 내재되어 있어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구조 속에서 둘째 단락은 현재의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겠다.